

2019년 11월 2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1차 무역협상 지연 보도 여파로 하락 1차 무역협상 최종 타결, 내년으로 지연 Vs. 합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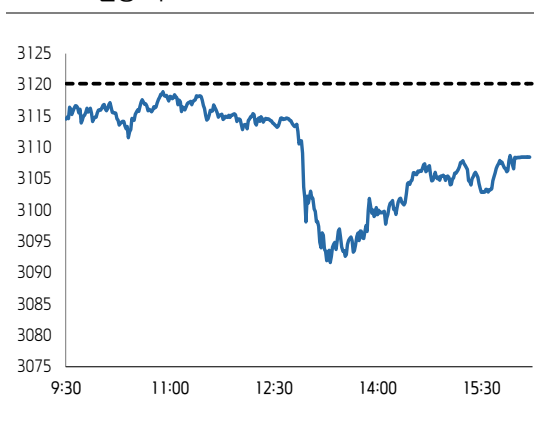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무역협상 불확실성 ②소매유통업체 실적

미 증시는 홍콩인권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타겟(+14.06%)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로 보험권 등락,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 그러나 미-중 1 단계 무역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매물 출회되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 다만, 백악관에서 협상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낙폭이 축소되며 마감(다우 -0.40%, 나스닥 -0.51%, S&P500 -0.38%, 러셀 2000 -0.42%)

지난 10월 트럼프와 므누신은 1차 무역협상 최종 타결은 약 5주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 중국 정부 또한 12월 초에 1차 협상안에 서명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 이 영향으로 12월 15일 부과되는 1,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그러나 중국의 단계적 관세 인하 합의 발표에 대해 미국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마찰이 불가피. 특히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해결 없이 기존 관세 철회 없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

이런 가운데 로이터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 단계 미-중 무역거래 완료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라고 보도. 이 경우 연기 기대가 높았던 12월 15일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 반면 트럼프는 오늘도 중국과 대화는 계속하고 있으며 12월 15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무역협상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해 시장 부담을 일부 완화. 더불어 백악관 부대변인이 “협상은 진행중이며 문서화에 진전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자 증시 하락폭이 축소. 한편, 미 상무부가 기업들에게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긍정적. 향후 주목할 부분은 12월 15일 관세 부과 여부인데 현재 시장은 그래도 관세 부과 연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낙폭 일부 축소 요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25.32	-1.30	홍콩恒生	26,889.61	-0.75
KOSDAQ	649.87	-1.91	영국	7,262.49	-0.84
DOW	27,821.09	-0.40	독일	13,158.14	-0.48
NASDAQ	8,526.73	-0.51	프랑스	5,894.03	-0.25
S&P 500	3,108.46	-0.38	스페인	9,225.40	-0.37
상하이종합	2,911.05	-0.78	그리스	890.37	-0.34
일본	23,148.57	-0.62	이탈리아	23,351.78	+0.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원유 서비스 업종 급등

타겟(+14.06%)이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31% 증가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주택 용품업체인 로이어스(+3.91%)도 견고한 경제적 배경을 반영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원유서비스 업종인 솔룸베르거(+5.33%)와 할리버튼(+3.17%)은 국제유가 상승과 도이체방크가 2020년 하반기부터 탐사 및 생산지역에서 폐유 수거 및 처리 서비스로 인해 수익 증가 기대가 높다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상승 했다. 코노코필립스(+3.83%), EOG리소스(+2.36%) 등도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NVIDIA(+1.53%)는 게임, 서비, 자율주행 등에서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했다.

존슨앤존슨(+0.83%), 머크(+0.73%), 일루미나(+1.25%) 등 제약, 바이오 업종은 민주당 5차 TV토론에서 'Medicare for All' 프로그램 우려가 일부 완화되자 상승 했다. 반면, 의류업체인 어반 아웃피터(-15.23%)는 경쟁 심화와 미-중 무역불확실성 여파로 실적 부진을 발표하자 하락 했다. L브랜드(-7.51%), 노드스트롬(-4.37%) 등도 실적 부진 발표하자 하락 했다. 통신업체 AT&T(-2.16%)는 전일 이어 오늘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3%	대형 가치주 ETF(IVE)	-0.45%
에너지섹터 ETF(OIH)	+1.60%	중형 가치주 ETF(IWS)	-0.30%
소매업체 ETF(XRT)	-1.27%	소형 가치주 ETF(IWN)	-0.43%
금융섹터 ETF(XLF)	-0.47%	대형 성장주 ETF(VUG)	-0.31%
기술섹터 ETF(XLK)	-0.60%	중형 성장주 ETF(IWP)	-0.0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8%	소형 성장주 ETF(IWO)	-0.20%
인터넷업체 ETF(FDN)	-0.23%	배당주 ETF(DVY)	-0.08%
리츠업체 ETF(XLRE)	+0.05%	신중국 고배당 ETF(DEM)	-0.32%
주택건설업체 ETF(XHB)	+0.02%	신중국 저변동성 ETF(EEMV)	-0.12%
바이오섹터 ETF(IBB)	+0.45%	미국 국채 ETF(IEF)	+0.37%
헬스케어 ETF(XLV)	-0.13%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06%	물가연동채 ETF(TIP)	+0.39%
반도체 ETF(SMH)	-0.98%	Long/short ETF(BTAL)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2.61	+1.04%	-1.41%	-1.09%
소재	371.81	-1.18%	-1.31%	+3.21%
산업재	684.10	-0.75%	-0.27%	+4.06%
경기소비재	943.00	-0.28%	-0.43%	-0.97%
필수소비재	632.24	+0.18%	+0.43%	+0.58%
헬스케어	1,128.87	-0.09%	+2.33%	+5.57%
금융	492.26	-0.50%	+0.35%	+3.97%
IT	1,525.92	-0.72%	+0.48%	+7.69%
커뮤니케이션	176.25	-0.79%	+0.23%	+3.23%
유틸리티	319.57	+0.63%	+1.04%	-2.50%
부동산	239.81	+0.03%	+2.15%	-3.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44%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어 409 계약 순매수 했으나 0.45pt 하락한 282.2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9.9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특히 외국인의 MSCI 지수 편입으로 추정되는 물량까지 출회되며 하락폭이 컸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1 차 미-중 무역협상 서명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가파르게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12 월 초에 서명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와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관련 불확실성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감안 오늘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가 대화 지속을 언급하고 백악관에서도 협상 문서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은 불확실성 완화 기대를 높인다. 더불어 타겟의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쇼핑시즌 매출 증가 기대가 이어졌다는 점, 국제유가가 3% 급등하고,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 등은 투자심리 위축 우려를 완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부진

미국 모기지신청지수는 지난주 대비 2.2% 둔화 되었다. 재 신청지수 또한 지난주 대비 8.0% 둔화되었다. 30 년물 모기지 대출 금리는 3.99%로 4bp 하락했으나 지난주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감소해 전월 발표(mom +0.1%)는 물론 예상(mom - 0.1%)을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는 0.6% 둔화되었다.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해 예상과 부합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①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 ②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유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OPEC 과 산유량 감산 관련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더불어 예멘 반군이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은 140 만 배럴 증가에 그쳤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미-중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무역협상 불확실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악관의 협상 진전 발표, 트럼프의 협상 지속 발표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변화가 제한된 점이 특징이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전일 트럼프가 협상이 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협상 지연 보도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긴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위원들이 상당한 경기 둔화가 없으면 추가 인하를 원하지 않는다는 연준의 금리동결을 시사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로 “금리 변화를 주기 이전에 경제를 관찰하며 관망할 것” 이라고 주장한 점도 영향은 크지 않았다.

금은 FOMC 의사록 공개를 기다리며 약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5%, 철근도 1.09%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7.01	+3.00	-0.33	Dollar Index	97.914	+0.06	-0.47
브렌트유	62.40	+2.45	+0.05	EUR/USD	1.1072	-0.05	+0.59
금	1,474.20	-0.01	+0.74	USD/JPY	108.62	+0.07	-0.18
은	17.261	-0.02	+1.20	GBP/USD	1.2919	-0.05	+0.53
알루미늄	1,741.00	+0.58	-1.36	USD/CHF	0.9912	+0.07	+0.11
전기동	5,875.00	0.00	+0.69	AUD/USD	0.68	-0.41	-0.56
아연	2,313.00	-1.32	-4.50	USD/CAD	1.3304	+0.27	+0.40
옥수수	377.25	-0.92	-1.76	USD/BRL	4.1968	-0.06	+0.79
밀	518.75	+0.68	+0.97	USD/CNH	7.0369	+0.13	+0.10
대두	905.00	-0.71	-1.12	USD/KRW	1170.10	+0.21	+0.20
커피	110.95	+4.52	-0.18	USD/KRW NDF1M	1169.91	+0.18	-0.0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30	-5.31	-15.65	스페인	0.422	-0.40	-2.50
한국	1.666	-5.90	-11.90	포르투갈	0.382	+1.40	+2.10
일본	-0.106	-2.60	-6.40	그리스	1.380	-4.00	-0.60
독일	-0.347	-0.80	-4.70	이탈리아	1.198	-4.50	-4.50